

보도자료

My Sky Your Sky

2024년 6월 7일 — 7월 13일

참여작가: 권현빈, 이민지, 이해민선

*문의: press@whistlewhistle.kr 02-794-4775

서울시 용산구 호남로 13길 12, 1F, B1F

<http://whistlewhistle.kr>

Instagram @whistle_seoul

**“휘슬 갤러리 재개관, 두 기획자의 대화로 이루어진 전시 <My Sky Your Sky>전 개최.
권현빈, 이민지, 이해민선 작가 참여.”**



전시전경, <My Sky Your Sky>, 사진: 김경태

휘슬은 2024년 6월 7일(금)부터 7월 13(토)까지 새롭게 확장한 공간에서 조각가 권현빈, 사진작가 이민지, 회화작가 이해민선이 참여하는 <My Sky Your Sky>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장소에 따라 하늘의 모습이 늘 달라 보인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업에 임하는 미술가들 또한 같은 대상에 대한 인상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특히, 기획자들은(휘슬 대표 이경민, 부디렉터 김수현) 각기 다른 매체와 주제로 작가들이 작업하지만, 세 작가의 작업이 어우러지는 이유에 주목하며 대상, 수행 그리고 감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전시를 소개한다.



이해민선, Still, Life : 잔설, 2024, 인화지 위에 아크릴, 91×159.5cm. ©이해민선,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stle

이해민선 작가는 오랜 기간 동안 회화의 주제와 재료를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가 사용하는 인화지는 물감을 튕겨내거나 한번 흡수하면 수정이 어려운 특수한 성질로 인해 그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다. 작가는 끊임없이 회화의 표면을 연구해야 하며 이는 일종의 수행 행위처럼 보인다. 이러한 행위는 작가가 오랜 시간 천착해 온 작업의 주제 “가볍고 약한 사물, 임시로 놓인 채 방치된 사물, 버티고 있는 것”과 연결된다.



권현빈, Untitled, 2024, 스타투아리오(Statuario), 잉크, 40×18×31cm. ©권현빈,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stle

권현빈 작가는 주 작업 재료인 돌의 육중한 성질을 대조적으로 선보인다. 특히 얇은 돌 판 위에 석재용 초경날을 이용해 만든 섬세한 선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돌에 대한 감각을 뒤집는다. 작가가 새긴 선이나 점을 살펴보면 돌이 견뎌온 시간을 존중하는 그의 태도를 느낄 수 있다.

작품에 사용된 푸른 잉크는 경쾌해 보이는 한편, 명상적인 작가의 심상이 스며 있는데 이 안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거나 점차 사라지기도 한다. 권현빈은 이러한 유동적인 상태를 “안료를 액체 상태로 있게 만드는 어떤 물질이 날아가고 다시 입자의 상태로 돌 틈에 박혀 있는 상태”라고 말한다.



이민지, 빛의 파노라마, 2024,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144x111cm, ©이민지, Courtesy of the artist and Whistle

이민지 작가는 본인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시간의 흔적을 추적하며 사진과 여러 물리적 감각에 기반하여 작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설치된 <빛의 파노라마> 시리즈가 촬영된 장소는 인천에 위치한 소청도다. 인천은 가족의 오랜 터전이기도 하며, 분단 경계선에 근접한 소청도는 다층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작가는 해당 장소에 긴 시간 머물며 고유한 흔적과 거주자들의 이야기를 모아 사진에 담아낸다. 또한 그는 섬에서 보게 된 화석 지형에서 영감을 얻어 감광 작업, 프로타주 등 사진 결과물을 다른 물질로 치환하는 탐구도 진행하고 있다.

하늘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동시에 낯선 순간을 선사하곤 한다. 이처럼 세 작가는 저마다의 궤적을 그리며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가지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 탐색하는 공통점을 통해 풍부한 인상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전시는 7월 13일까지.

작가 약력

권현빈(b. 1991)은 눈에 머무는 대상을 오랜 시간 바라보며 그것의 조각으로서의 가능성을 상상한다. 주재료인 돌을 바라보다 틈새를 찾아 쪼개고, 두드리고 파내거나 붙여본다. 권현빈은 <두산아트랩 전시 2019: Part 1>(2019, 두산갤러리, 서울)에 선정되었으며, 갤러리 기체, 모노하, 에이라운지, 레인보우큐브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또 하이트컬렉션, WESS, 아트선재센터, 아마도예술공간, P21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민지(b. 1986)는 본 것과 못 본 것을 찍는다. 찍은 것들의 감각적 시-차를 가늠하며 단어와 목소리를 붙이기도 한다. 그런 것들을 모아 개인전 <오직 미래만이 과거를 방문한다>(2023, 인천아트플랫폼, 서울), <고스트 모션>(2021, 갤러리조선, 서울), <사이트-래그>(2018, 합정지구, 서울)를 열었고, 사진책 『그때는 개를 제대로 잘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사월의눈, 2019)를 만들었다. 본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 감각들로, 타자에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묻고 보려고 한다.

이해민선(b.1977)은 외부의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버텨야 하거나 임시방편으로 놓인 사물에 주목한다. 인공과 자연, 생과 죽음이 만나는 지점을 포착해 그것을 드로잉, 페인팅, 설치 작업으로 형상화해왔다. 이해민선은 개인전 <디코이>(2021, 페리지 갤러리, 서울), <덩어리>(2021, 플레이스막, 서울), <살갓의 무게>(2015, 합정지구, 서울) 등에 참여했다. 최근의 타데우스 로팍 전시 외 대구미술관, 하이트컬렉션 등 다수 기관의 기획전에 참여했다.